

한국 경영학의 생성, 과제 그리고 발전

-반성과 전망-

김 해 천 |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 나라에 기업 경영을 대상으로 연구되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해서 어언 반세기가 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경영학이 기업 경영의 이론과 실무에 많은 발전을 촉구했다. 21C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영학의 발전이 더욱 요구된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했던 필자가 정년으로 퇴임한지도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경영학의 발전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진취적인 의제를 짚어봄으로서 한국 경영학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I. 한국 경영학의 도입과 학명(學名)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경영학의 명칭은 일본이 구미(歐美; 특히 독일어권 나라와 영어권 나라)의 이질적인 학문 체계에서 생성된 학명의 대역(한문으로의 번역)에서 유래된다. 경영학보다 먼저 도입된 학문은 상업학이었다. 문헌사적으로 고찰하면 상업에 관한 문헌이 산발적으로 발견되어 경영학의 선사(先史)를 이루나 대학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면서 한국 경영학은 태동되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 나라 대학에는 대부분 경

영대학이 독립된 단과대학 혹은 경제학과와 병존하는 경상 혹은 상경대학이었다. 이는 경영학의 학명 변천과 일치한다.

일본의 경영학은 그 생성에 있어 독일에서 경영경제학(Betriebswirtschaftslehre: BWL)이라는 독립된 학문 체계를 도입하여 학문적 기틀을 구축했으며, 대전후에는 미국에서 관리학을 도입하여 경영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섭취했다. 그러나 그 대역(對譯)에 있어 일본이나 그들에 의해 이식된 우리 나라의 경영학은 그 생성기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선진국 경영학의 혼합물이었다. 이로 인해 학문의 성격 규명이 매우 어려웠으며 이는 경영학의 역사가 일천함에 연유된다. 다음은 독일과 미국의 정황과 한자표기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은 오늘날도 경영경제학(BWL)이라는 학명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BWL이 그 학명을 얻게된 과정은 방법론상 험난한 논쟁의 결과였다. 상업학(商業學)과 관방학(官房學)의 상극적 논쟁의 와중에서 상과대학의 설립을 보게되었으며, 개설하고자하는 교과목명을 둘러싼 방법론적 논쟁에서 개별경제학(個別經濟學) 내지는 사경제학(私經濟學)의 논쟁을 거쳐 경영경제학(經營經濟學)이라는 학명을 획득했다. 이로서 경영경제학(BWL)은 국민경제학(VWL)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그러나 서로 병

존하는 위상을 확립했다. 그래서 종합대학교에서는 "경제·사회과학부(Wirtschaft und Sozialwissenschaftliche Fakultät: WISO 학부)에 VWL과 BWL이 공존하고 있으며 오늘날 경영학은 사회과학으로의 성격을 굳히고 있다.

이에 비해서 영국에 있어서는 경제학의 대국답게 미시경제이론의 기업에의 적용이라는 기업경제학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독립된 학문으로의 종합화보다는 개별적인 영역의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예로서 학명으로는 기업관리학, 관리경제학 그리고 조직행동학 등으로의 분화이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에 있어서도 기업 기능별 영역으로서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회계 등 세분화되고 있으며 오늘날 각 대학에서 e-

business의 열풍이 대단한 것으로 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프래그머

티즘의 영향이 강한 나라이기에 이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기업 경영 더 나아가서 이를 초월한 영역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둔 경향이 농후한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경영학 연구의 가장 선진화된 나라이며 미국의 영향은 과히 세계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독일에 있어서도 내용면에 있어 학제적 연구의 증대로 경영경제학 자체의 성격과 학명을 어떻게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Quo vadis BWL). 그리고 소위 Betriebskunde(경영지식)으로의 전략을 경고한 문헌도 있다(여기에서 Betriebskunde는 적절한 번역이 어렵다. 다만 이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지식의 총체를 망라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경영학이라 불리워지는 학명은 분명 독일의

경영경제학의 대역에서 유래되었으며 중도에 경제학이 삭제되어 경영학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변천 과정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영 현실의 복잡화와 현실 경영 문제 해결의 다양화로 인한 대상 영역의 확대 경향에 연유된 것이라 하겠다. 즉, 경영의 경제뿐만 아니라 경영의 기술, 사회 문제에 관한 연구 대상의 확대이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요인은 미국의 management이다.

Management 또는 administration은 관리 또는 경영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그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연구 대상의 확대에 따라 학명의 재조명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경영학

회 등의 영문표기에는 대부분 business administration이 명기된다. 그래서 우

“

현재 경영학이라 불리워지는 학명은 분명 독일의 경영경제학의 대역에서 유래되었으며 중도에 경제학이 삭제되어 경영학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리말로 직역하면 기업경영(또는 관리)대학, 기업경영연구소 그리고 기업경영학회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영학을 독일 또는 영역하면 특히 독일의 경우 Betriebslehre로 되나 그와 같은 호칭은 없다. 독일에는 Betriebswissenschaft의 호칭이 있으나 이는 억지로 영역하면 management science 또는 engineering이 된다. 그러나 내용은 경영공학과 유사하며 이들 명칭은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호칭이다.

주지하는 바 독일은 Betriebs와 영어의 management는 그 나라에 특유한 언어이며 상호 대역이 어렵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를 경영 그리고 후자를 관리 또는 경영으로 번역하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BWL의 합성어를 경영경제학으로 번역해서 학명으로 정착시켰으나 누가 언제 그와 같이 번

역해서 보급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는 현재 까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필자 나름대로 한자인 '經營'을 중국 고전을 보면서 그 의미를 음미해 보았다.

『詩傳大雅靈臺篇』에 “經始靈臺，經之營之，庶民攻之，不日成之”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해석하면 “文王이 영대 공사를 시작함에 헤아려 도모하니 서민들이 가서 일하는지라 하루가 못되어 완성되었다”이다. 여기에서 경영은 ‘계획경영’이 된다. 또한 『貞觀政要』卷第二，任賢第三에 “必欲經營四方，非此人莫可”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전후를 연결시켜 해석하면 “만일 大王이 번을 지키고 天下四方을 통치하려면 병조참군인 도요베를 참모로 가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太宗에게 간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경영은 오늘날 management에서 ‘전략경영’에 해당된다. 또한 같은 책의 教誡太子諸王 第十一 第五 障에 태종(太宗)이 창업과 수성에 있어 후자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하는 말이 있다. “朕少小以來，經營多難，備知天下之事” 이를 해석하면 “짐은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을 경험해서 빠짐없이 天下의 일을 알고 있으나 미치지 못한 데가 있음을 두려워한다.” 창업과 수성은 경영학적으로 전략과 조직의 뜻이 된다. 여기에 많은 고난을 경험해서의 경영은 ‘실천경영’으로 해석된다.

Management의 계획경영의 뜻이 옛 회람의 피라미드 공사에서 연유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經營’은 독일의 Betriebs의 번역이나 앞서 본 한자의 의미에서 management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양자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Betriebs는 betreiben(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다)의 명사로서 경영체(조직체)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독일에서는 Betriebsführung(경영지도) 또는 Unternehmungsführung(기업지도)라는 학명의 표기도 있다. 경영체

또는 기업체의 관리로 해석하면 영어의 business management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의 경영학도 “한국학”과 같이 kunde로 전략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므로 경영체의 관리를 경영학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제 경영학을 business가 삭제된 management로 대역할 때 business의 기본기능(생산, 마케팅, 재무)의 실체 경영이 전제가 된다.

II. 경영학의 기본 구상과 과제

경영학의 기본 구상은 경영학 연구의 기본 전략으로서 경영학의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을 규명하는 이론적 기틀이며 경영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의 구축은 경영학이 어떠한 학문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경영학은 사회 제도의 한 기관인 기업 경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 당연히 사회과학의 범주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실천지향적인 실체과학(Realwissenschaft)으로서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

필자는 교수 재직시 『경영학 원론』이라는 졸작을 저술했다. 그 후 한 번도 수정판을 못냈다. 그 저서에서 본인은 실제 과학으로서의 경영학의 연구 구상에 관한 기본과 과제를 K. Chmielewicz의 구상도에 의거 설명한 바 있다. 경영학은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유효한 경영 실천을 위한 이론 체계를 정비해야 되나 가치 중립적 경영학의 형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경영 현실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이론-실천의 협동 체계의 구축이 경영학의 중대한 과제가 된다. 여기에 경영학실사와 경영사의 관계도 중요하다.

또한 경영학의 연구 구상에 있어 이상의 방법론상의 과제도 중요하지만 경영학의 체계적 구상도

중요하다. 필자는 앞의 저서에서 경영의 기능과 제도를 매트릭스형으로 대비시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약속하겠다.

최근 P. F. Drucker는 "management's new paradigm(1998)"의 논문에서 management(mgt.)의 대상영역을 기업체를 초월한 사회의 개별 제도(조직)에 확대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래 지식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의 이론과 실천의 기초가 되는 대전제가 바뀌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지식 사회화되어가는 환경 변화에서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그는 이 이전의 논문집 "The ecological vision(1993)"에서 피력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 Drucker는 경영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다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스스로를 사회생태학자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미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계속과 변혁(유지와 창조)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mgt.의 역할변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경영 마인드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이로 인해 앞에서 학명의 혼미에서 오는 학문성의 한계가 문제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전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Drucker은 mgt.를 기업의 mgt.로 보지 않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조직의 새로운 통치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그는 mgt.는 모든 조직에 특유한 기능이며 이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mgt.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그의 새로운 역할은 새로운 다원 사회에 있어 여러 새로운 조직을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통적인 경영(mgt.)에 대한 기본적 전제를 제시하고 이들을 변화된 사회를 관리하는데 구식적이어서 앞으로의 기능을 위해 새로운 현실의 인식을 위한 새로운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전제는 오늘날의 경영의 이론이나 실천에서 많이 보았던 것이나 예로서 기업에서 사회 조직으로, 관리자 기능에서 기업가적 혁신 기능으로, 내부 관리에서 외부 관리로, 하나의 과학 체계에서 문화적 가치적 체계로, 경제 발전의 결과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 요소로의 전제 전환 등이다. 이는 계획 경영에서 전략 경영으로의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상은 전통적 대전제의 새로운 대전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이를 뒷받침할 조직의 개발도 중요한 전제 변환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급변하는

“ 경영학의 체계적 구상은 경영의 기능과 제도의 결합에 의해 실현되며 분류와 결합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된다. ”

조직 사회에 있어 조직 스스로 삶의 질(QOL)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즉, 조직을 개인의 욕구나 의욕, 잠재 능력에 적응시키는 수단으로서 조직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기본 구상은 주로 학문 체계상으로는 기업 경영의 관리 시스템(계획·전략)에 한정시켜 논했다. 그러나 경영학의 체계에 있어 기본 기능은 실물과 재화 시스템(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및 조직 경영 정보(MIS), 회계 및 통제 시스템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경영 제도는 사적인 기업 및 경영 형태로서 제조업, 서비스업, 공영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경영학의 체계적 구상은 경영의 기능(function)과 제도(institution)의 결합에 의해 실현되며 분류와 결합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된다. 현재 우리 나라 대학에 있어 전공 분야와 전공

과목은 이상의 기능과 제도의 분류나 결합에 의해서 구성 내지는 형성된다(다만 여기에서 국제 경영 분야는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Ⅲ. 한국 경영학의 반성과 전망

경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우리 나라에 등장해서 반세기가 되었으며 이제 21세기라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했다. 앞에서 보아온 문제들도 일종의 반성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한국 경영학이라 호칭할 때 한국식 경영학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상 고찰한 (한국)경영학의 반성에서 한국식 경영학의 성립과 발전의 미래를 짚어 볼까 한다.

1999년 12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경영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경제 위기와 한국 경영학-반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거기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이 보고서로 출간되었다. 제 1주제로는 황일청 교수의 "경영학 교육의 반성과 과제"였으며 제 2주제는 김인수 교수의 "경영학 연구의 반성과 과제"였다. 심포지엄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보고서는 입수되어 숙독했다. 지극히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한국 경영학의 교육과 연구를 반성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인지되었다. 이상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수긍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몇가지 느낀 바를 피력하고자 한다. 생각컨대 필자도 한국경영학회 30주년 창립 총회 때 경영 정책 부문의 학문성과 교수성을 발표한 기억이 새로워진다. 매년 개최되는 한국경영학회의 학술적 활동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먼저 심포지엄의 제 1주제인 "경영학 교육의 반성과 과제"에서 경영학 교육이 지닌 일곱 가지 후

진성을 지적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다음 일곱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목표의 형식화, 부진한 PD 프로그램, 비효율적 학습 관행, 능력없는 대학 행정, 부실한 교육 투자, 부실한 연구 활동, 교육질의 외면이다.

이상 항목들은 교수, 학생, 행정 그리고 교육 투자자의 부실한 활동으로 인한 후진성의 진단이었다. 이에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개혁으로 열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홉 번째인 개혁 추진의 뒷바침을 위한 경영대학의 협의회의 설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제 1주제인 교육의 반성과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는 교과목 편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대학별로는 차이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교수의 입장에서는 시대적으로 교과 내용의 증대 욕구가 있는 반면 대학측에서는 학점제의 단축 요망이 있어 적절한 교과목 편성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경영학설사나 경영사 과목의 누락으로 인한 역사적 사고능력의 감축이다. 경영선사의 발굴도 중요하다.

필자가 독일 유학 때 느낀 바 하나가 있다. 일본 학자에 의해 독일 학술지에 개성(송도) 부기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쾰른'의 자본주의 발전과 부기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한국에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아 개성 부기는 한국 것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선사 발굴의 왜곡이었다. 또한 독일 경영학 대사전에는 일본 상업 제도를 소개하면서 그 선사 과정을 한국 상업사에서 찾고 있음을 알았다.

옛날 학창 시절을 회상컨대 전공과목 수는 적고 학점 제한은 240학점의 여유가 있어 많은 인접과목(예로서 민법, 상법)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사이 e-business 과목이 현저히 눈에 띄어 벌써 구세대임을 통감케 하고 있다.

다음은 제 2주제인 "경영학 연구의 반성과 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적 경영론의 개발을 위한 경영학계의 연구 활동 상황을 평가하고 연구의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반세기 동안의 한국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 있어 한국 경영 이론의 개발이 취약했으나 국내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수나 학회 회원의 증가 추이로 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미래 전망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주제의 발표자는 한국 경영의 이론 개발과 연구 추진의 양 과정에서 본 연구 실적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의 당면 과제를 논하고 있다. 연구 실적에 있어 주안점은 한국적 실천경영론의 이론 창출에 두고 있으며 best practice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론 도출적 연구로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론-실천의 협동구상을 위한 의제의 창출이 또한 과제가 된다.

끝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의 당면과제는 다음 여덟 가지로 되어 있다.

즉,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의 결여, 이론 도출적 연구를 통한 현상 기술적 이론 개발, 이론 검증적 연구 병행, 이론 개발위원회 구성, 비판적 고찰 논문의 발표, 연구 지원 활성화와 논문포상 제도, 학회의 지나친 분회방지 등의 여덟 가지이다.

여기에서 첫째와 여덟 번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특히 첫 번째에 있어 전공 선택과 논문 발표에 있어 need형이 추가 되기에 seed형의 논문 발표는 당연히 지연된다. 연구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음 여덟 번째 학회의 지나친 분회방지인데 개별적 학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이는 경영학 교과목의 세분화에도 관계가 있다. 가히 과목이 세분화되고 학회의 분화 설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론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 강의나 공동 발표를 시도하여 경영 이론의 종합화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한국식 경영학의 형성을 위해서는 비교경영학이나 경영학실사 또는 경영사에 관한 연구 개발도 병행되어야 된다. 한국 경영학의 발전을 기원할 따름이다. **■**

김해천

고려대에서 경제학 학사,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Köln 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Harvard 대학 경영대학원 연구,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교수, 한·독 경상학회 회장, 한국 생산관리학회 회장, 한국 경영학회 회장, 사무처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